5. 화성의 경관성(景觀性)

5. 화성의 경관성(景觀性)

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수원팔경(水原八景)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. 그런데 수원팔경이 명명되기 전에 수원에는 춘팔경(春八景)과 추팔경 (秋八景)이라는 16개소의 아름다운 경관이 있었다.

또 이 경관들은 1796년 10월16일, 화성 축성공사를 마치고 낙성연을 진행 할 당시 이미 당대 최고의 화가인 단원 김홍도에 의해 그려져 각각 8폭의 병풍으로 만들어졌다. 지금은 추팔경 중에서 한정품국(閒亭品菊)과 서성우렵(西城羽獵) 두폭만 남았을 뿐이다.
춘팔경,추팔경에 관해서는 홍길주(1786~1841)라는 사람이 남긴 표롱을참(標聾乙懺)이라는 문집에 글이 있어 춘팔경과 추팔경 원래 모습의 일부분이 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.

또화성성역의궤(華城城役儀軌)에 방화수류정을 그린 ' 동북각루외도' 와 만석거 주위를 그린 ' 영화정도' , 남지를 그린 ' 은구도' , 영화역을 그린 ' 영화역도' 등이 실려 있어 춘팔경과 추팔경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.

수원 춘팔경과 추팔경은 ' 수원팔경' 으로 정리돼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.

● 수원 춘팔경

① 화산서애 (花山瑞靄) –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화산의 정경
② 유천청연 (柳川晴烟) – 맑은 날 물안개 낀 수원천의 풍경
③ 오교심화 (午橋尋花) – 꽃놀이가 한창인 매향교
④ 길야관상 (吉野觀桑) – 뽕나무숲 아름다운 관길야
⑤ 신풍사주 (新豊社酒) – 향음주례가 행해지는 신풍루 광경
⑥ 대유농가 (大有農歌) – 농요 소리 드높이 농사가 한창인 대유둔의 들녘
⑦ 화우산구 (華郵散駒) – 말들이 이리저리 뛰노는 영화역의 풍경
⑧ 하정범익 (荷汀泛朋) – 연꽃 사이로 물새가 떠다니는 연못 정경

● 수원 추팔경

① 홍저소련 (虹渚素練) – 흰 비단을 펼친 듯 물살 장쾌한 화홍문의 장관
② 석거황운 (石渠黃雲) – 만석거 주변의 황금 물결
③ 용연제월 (龍淵霽月) – 맑은 하늘 달 밝은 가을 밤의 용연
④ 구암반조 (龜巖返照) – 저녁볕 찬란한 구암의 경치
⑤ 서성우렵 (西城羽獵) – 가을 사냥이 한창인 화서문 밖의 풍경
⑥ 동대화곡 (東臺畵鵠) – 활쏘기가 벌어진 동장대 정경
⑦ 한정품국 (閒亭品菊) – 국화꽃 벌여놓고 완상하는 미로한정의 가을풍경
⑧ 양루상설 (陽樓賞雪) – 늦가을의 화양루 눈 구경

H W A S E O N G F O R T R E S S

● 수원 팔경

① 광교적설 (光敎積雪) – 광교산에 눈 쌓인 모습
② 팔달청람 (八達聽嵐) – 팔달산 푸른 솔바람과 신비로운 안개
③ 남제장류 (南提長柳) – 수원천 긴 제방에 늘어선 버드나무
④ 화산두견 (花山杜鵑) – 화산의 두견새 울음소리
⑤ 북지상련 (北池賞蓮) – 북쪽연못의 흰색 붉은 색 연꽃
⑥ 서호낙조 (西湖落照) – 서호 노을에 드리운 여기산 그림자
⑦ 화홍관창 (華虹觀漲) – 화홍문의 비단결 폭포수
⑧ 용지대월 (龍池待月) – 용지에서 월출을 기다리는 경치

〈 용연과 방화수류정 그리고 화홍문의 조화 〉